

# 호랑이군단 5할 뚫기, 관건은 방망이



이범호

‘지지부진’ 타선

5경기 팀타율 0.243·OPS 0.691 리그 9위  
이범호 6월 들어 주춤·나지완 여전히 부진  
중심타선 역할 못해 선취점 내고도 불안불안

‘호랑이 군단’이 잡힐 듯 잡히지 않는 5할을 놓고 난적과의 힘겨운 6연전을 치른다. KIA 타이거즈는 앞선 두산·롯데와의 원정길에서 3승2패를 거두고 돌아왔다. 패보다 승이 많았지만 잠시 5할 고지에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다. 신기루 같은 5할을 앞에 두고 어려운 상대들을 만난다. KIA만 만나면 불을 뿜는 넥센과 명품 투수전을 벌였던 1위 삼성이 안방을 찾는다.

지난주 KIA의 야구는 ‘짚풀 야구’였다. 팀 평균자책점이 2.71을 기록했고, WHIP(이닝당 출루 허용률)도 0.93으로 10개 구단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철벽 방어의 마운드였지만 공격도 ‘짜다’. 2일 두산과의 첫 경기에서 니퍼트를 공략하면서 시원하게 9점을 뽑아냈지만 3일에는 김주찬의 솔로포로 만든 1점이 유일한 득점이었다. 양현종이 출격한 4일 6-0 완봉승을 거뒀지만 롯데와의 두 경기에서 흠을 밝힌 사람은 4명에 불과했다.

7일 목디스크가 재발한 김민우를 대신해 2군에 있던 나지완을 불러들였지만 이렇다 할 효과는 없었다. 처음 세 타석에서 2개의 삼진을 기록하는 등 침묵했던 5번 타자 나지완은 마지막 타석에서야 겨우 안타를 신고했다. 필이 솔로포로 분위기를 뒤집어 보려

‘환골탈태’ 마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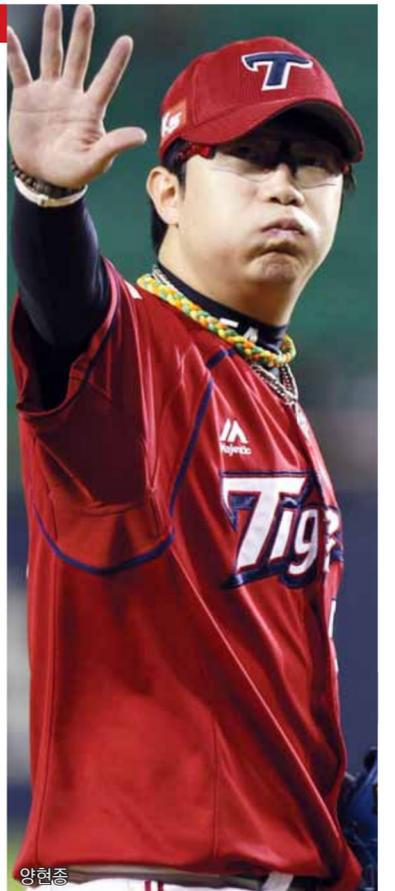
평균자책점 2.71·WHIP 0.93 리그 1위  
윤석민 구위 찾아 펄펄...김진우 성공 복귀  
양현종·스틴슨 주축 서재용 등 선발 폭 넓어

어려운 상대와의 6연전, 화력이 승패의 키를 쥐고 있다. KIA만 만나면 거침없이 돌아가는 넥센의 방망이, 넥센만 지나가면 치솟는 팀 평균자책점이다. 올 시즌 넥센전 평균자책점은 7.10까지 올라갔다. 6경기에서 12개의 피홈런을 얻어맞으면서 1승5패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25이닝 연속 무실점 행진을 하고 있는 에이스 양현종이 삼성 징크스 탈출에 이어 넥센 징크스 탈출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앞선 대결을 통해 지쳐있던 삼성전 부진의 고리는 끊었다. 양현종과 스티슨을 앞세워 두 경기 연속 영봉승을 거두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다시 만나는 주말, 타자들이 마운드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올 시즌 삼성전 타율은 0.235, 출루율도 0.297에 그치고 있다.

양현종·스틴슨을 주축으로 마운드는 안정세다. 유창식도 순조롭게 새 팀에 적응하고 있고 김진우의 복귀 속에 김병현, 서재용, 임준혁 등 선발 자원들의 폭넓은 운영이 가능하다. 마무리 윤석민도 충분한 휴식으로 제 구위를 찾았다.

폭발력이 떨어지는 중심타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험난한 6연전이다.



양현종



프로야구 중간순위 (6월 8일 현재)

순위	팀	승	패	무	승률	연속
1	삼성	35	22	0	0.614	2패
2	NC	32	23	1	0.582	2승
3	두산	30	23	0	0.566	1승
4	넥센	32	25	1	0.561	1패
5	SK	28	26	1	0.519	2승
6	롯데	29	28	0	0.509	1승
7	한화	29	28	0	0.509	1패
8	KIA	27	28	0	0.491	1패
9	LG	25	32	1	0.439	2패
10	kt	13	45	0	0.224	1승

고 했지만 경기는 2-4패. 이범호도 좀처럼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범호는 지난 5경기에서 14타수 1안타, 0.071의 타율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해줘야 할 선수들의 침묵 속에 지난 5경기 KIA의 팀타율은 0.243으로 지난주 9위, 출루율과 장타율을 묶은 OPS역시 0.691로 9위에 그쳤다.

## ‘검도 명가’ 서석중 전국대회 싹쓸이



지난 7일 회장기 대회 단체전 우승컵을 안으면서 울며라 참가한 모든 전국대회를 싹쓸이 한 서석중 검도부. (서석중 제공)

회장기 중·고 대회 단체전 우승...올 모던대회 정상

광주 서석중학교(교장 남궁성) 검도부가 회장기 전국중·고등학교검도대회 단체전에서 우승하면서 올해 열린 모든 전국대회를 싹쓸이 했다. 서석중 검도부는 지난 5~7일 경남 거창 스포츠 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24회 회장기 전국중·고등학교 검도대회’ 단체전에서 대구 북동중을 3-1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서석중은 결승에서 선봉 김용화(2년)가 머리치기로 2-0 승리를 거두 기선을 제압했다. 이어 정용훈(3년)이 1-1로 비겼지만 곧바로 중견 양동관(3년)과 부장 최다원(3년)이 상대를 각각 2-0으로 제압, 승리를 굳혔다. 서석중은 앞서 1차전에서 경기 신곡중을 2-1로, 2차전에서 경북 형남중을 3-1로 꺾고 결승에 올라왔다. 이로써 서석중은 4월 춘계대회를 시작으로 5월 소년체전, 6월 회장기에서 모두 우승, 올해 참가한 모든 전국대회를 석권했다. 개인전에서는 최다원이 방준호(서울 신천중)에게 머리 실점을 허용하면서 0-1로 패해 준우승에 머물렀다. /박정욱기자 jwpark@

## 광주 돌풍, 강호 수원 삼켰다



광주 FC의 주장 임선영(왼쪽)이 지난 7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 삼성과의 경기에서 후반 33분 상대의 자책골로 선취점을 얻은 뒤 엄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광주 FC 제공>

후반 25분 정준연 퇴장 수적 열세 불구 1-0

창단후 첫 수원 제압...4위 도약 ‘실력 입증’



‘강등팀’이라는 우려의 시선은 사라진 지 오래다. 지난 5월 3경기 연속 무승의 부진에 빠지기도 했지만 밀리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준 광주 FC다. 지난 30일 제주전 승리로 재점화된 광주의 돌풍은 3일 전담을 넘어 7일 수원까지 삼켰다. 수적 열세라는 악재까지 넘어선 3연승으로 광주는 당당히 클래식 4위팀이 됐다. 지난 7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 삼성과의 원정경기. 앞선 홈승부에서는 광주가 경기를 주도하고도 실수에 스스로 무너졌다. 이번 원정 경기도 쉽지는 않았다. 전반 25분 해결사 김호남이 허벅지 부상으로 주

저 앉으면서 일찍 주현우와 교체됐다. 숨막히는 0-0의 승부가 전개되던 후반 25분에는 수비수 정준연이 경고누적으로 퇴장을 당하면서 1무4패의 수월전 무승은 계속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광주 선수들의 투혼이 빛을 발했다. 올림픽 대표팀에 승선한 이찬동이 잠시 외유를 나가있는 사이 안영규가 혼신의 플레이를 하며 수원을 압박했다. 한 발 더 뛰며 스타 군단과의 점유를 싸움에서 앞선 광주는 후반 33분 활짝 웃을 수 있었다. 코너킥 상황에서 이오름이 올린 킥이 수원 양상민의 몸을 맞고 그대로 골대로 향하면서 수원이 휘청였다. 행운의 선제골을 얻은 광주는 차분하게

남의 시간을 지키면서 적지에서 수원이라는 대어를 상대로 승점 3점을 누렸다. 원정 10연전 두 번째 경기에서 수원을 잡아내며 찍어낸 3연승. 올 시즌 전적은 6승4무5패(승점 22)가 됐고, 승격팀 광주는 4위까지 도약했다. 광주는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플레이로 팬들의 마음까지 뚫고 있다. 초반 돌풍이 잠잠해진 뒤 사그라들었던 광주의 이름도 다시 핫 키워드가 됐다. 초반 질주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광주, 절실함으로 인내를 했던 지난 시간이 결실을 맺고 있다. 주장 임선영과 베테랑 부주장 이종민을 중심으로 한 끈끈한 광주의 팀워크는 무시무시한 상대의 발을 묶는 가장 큰 무기다. 사연 많은 광주 FC가 클래식 무대를 흔들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동성고, 고교야구 주말리그 전라권 우승

광주일고 4-2 꺾어...6전 전승

광주 동성고(교장 이현종)가 6전 전승으로 2015 고교야구 주말리그 전라권 우승을 차지했다. 동성고가 지난 7일 무등경기장에서 끝난 주말리그 전라권 광주일고와의 최종전에서 8-6 승리를 거두면서 6연승으로 주말리그 전라권 우승팀이 됐다. 전날 전주고를 4-2로 꺾으면서 우승을 확정지었던 동성고는 광주일고까지 제압하며 탄탄한 전력력을 과시했다. 전승 행진으로 동성고 우승을 이끈 김재덕 감독은 “시즌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부상 선수 없이 게임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우승의 원동력이다. 마지막 경기에서도 편안하게 동성고 야구를 하고 선수들에게 주문을 했다. 학교에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었다. 모든 선수가 열심히 잘 해줬지만 특히 포수 신범수와 투수 김홍빈이 주축이 돼서 팀을 잘 끌어왔다. 신범수는 주장으로 리더십이 있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림을 잘 꾸려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주말리그 전반기 결과에 따라 동성고와 정읍 인성고(4승2패), 광주 진흥고(3승3패), 순천 효천고(3승3패)가 오는 19일 시작되는 왕중왕전 겸 황금사자기 출전 자격을 얻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